

민노당, 금호타이어 해고 철회 농성

노조동의서 없이 긴급자금 투입 강력촉구 ... 부실 경영진 사퇴도 요구

워크아웃 진행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금호타이어 노사가 정리해고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3월11일 오전 10시30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민노당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동의서 요구 없는 긴급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부실경영의 책임자인 경영진은 사퇴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지역 인권단체들도 금호타이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노조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3월3일 193명의 정리해고와 1006명의 도급화 계획 대상자 등 1199명의 명단을 통보했으며, 노조는 8-9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72.3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1>